

중국 연극에서 보이는 사랑과 변심*

-- 송대 남회를 중심으로

차미경**

<目 次>

1. 들어가면서
2. 남회의 사랑과 변심의 테마
3. '변심'을 통해 본 송대의 사회문화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송대는 귀족 중심의 정치가 종식되고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시기였으며 그에 따라 문벌귀족과 귀족문학이 몰락하고 새로운 지배계층인 사대부와 새로운 관료문학이 대두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당대와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문화면에서도 귀족적 성격이 사라지는 대신 서민적인 색채가 농후해졌다. 이와 같은 변화를 역사가들은 '당송간의 변혁'이라 부른다.

특히, 송대의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농업의 생산력 증가뿐 아니라 상업의 눈부신 발달로 각지의 도시가 발달하고 상품유통 구조가 거대화되면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 시민계층이 성장하였다. 이런 도시의 번영으로 여유를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7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중어중문학 전공 조교수

갖게 된 시민계층은 자신들의 오락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공연예술과 서민적 문화활동이 본격화 된다. 도시에 밀집하여 생활했던 시민계층은 농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계층이었다. 이 새로운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양자강 중하류지역에 발달한 도시들에 각종 대중 공연장인 와사(瓦肆)와 구란(勾欄) 등이 들어섰으며, 이전 시기의 전통적인 공연예술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다양한 양식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희(南戲¹⁾)라는 희곡양식의 등장이다. 남희는 중국에서 진정한 희곡으로 분류되는 최초의 공연예술 양식으로 남방의 주요 상업 도시이자 항구도시 온주(溫州) 일대에서 형성되었다²⁾. 온주에서 시작된 남희는 절강(浙江), 복건(福建) 등의 도시들로 퍼져나가 그 기반을 넓히며, 특히 항주(杭州), 복주(福州), 천주(泉州), 조주(潮州)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문화 예술이 번성했던 곳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남희가 유행하였음은 그만큼 많은 관객층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광종(光宗)시기에 항주에 내려졌던 금령이나, 복건지역에 내려졌던 주희(朱熹)와 그의 제자인 진순(陳淳)의 금령들을 보면 남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해준다³⁾. 이를 통해 당시에 무대에

1) 남희는 처음에는 남방의 鄉村에서 유행하는 민간가요를 바탕으로 싹터서 처음에는 궁조도 없고 리듬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속한 것이었다. 특히 언어가 분명한 구어체이고 세련되지 않아 애초부터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書會의 才人의 창작과 남부지방의 발달된 수로망과 시민계층의 성장으로 독특한 예술형식을 확립하고 각종 표현수단(諸宮調, 大曲, 滑稽戲 등)을 종합하여 비교적 성숙한 희곡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南戲는 北曲에 대한 상대적인 희곡의 명칭으로 夏庭芝의 『靑樓集』에 최초로 나타난 후 '永嘉戲曲', '戲曲', '戲文', '南戲文', '南戲', '溫州雜劇', '永嘉雜劇', '鶻伶聲嗽', '南詞', '南曲', '傳奇' 등의 異名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 남희의 산생 시기에 대해서는 역대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명대의 작가 축윤명(祝允明)은 《猥談》에서 남희가 1119년에서 1125년까지 지속된 선화(宣和)연간에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북송 왕조가 몰락하기 바로 직전에 기원을 둔 북송말엽설이다. 다른 하나는 서위(徐渭)가 《南詞敘錄》에서 宋光宗朝(1190-1194)에 시작되어, 永嘉人이 지은 〈趙貞女〉, 〈王魁〉 2종이 시초라는 남송설이다. 이 두설에는 70여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남희가 원시적인 歌舞小戲에서 점차 비교적 완전한 희곡 형식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보수적, 봉건적인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고사를 상연하는 남희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배층은 남희의 연출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祝允明의 《猥談》에 보면 "南戲는 宣和(1119-1125) 후 남도할 즈음(1127)에 나왔고, 溫州雜劇이라 불렀다. 내가 옛 문서를 보니 그 때에 趙閔夫가 금령을 내렸는데, 〈趙貞女蔡二郎〉 등의 명목들을 꽤 기록하고 있으나, 그리 많지

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공연되었을 것이고, 이런 금령까지 내린 것으로 보아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한 내용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회는 비록 완전한 작품이 전하는 것은 적지만, 일문들로 미루어 그 체제가 대단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⁴⁾. 여러 가지 체제 중 애정과 혼인을 체제로 한 작품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로 자유연애 및 자유결혼을 구하는 것과 혼인 후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두 가지 이야기 모두 결혼과 애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남자의 변심(變心)으로 인해 결혼이나 결혼의 약속이 파탄에 이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극을 혼변극(婚變劇) 또는 변심희(變心戲), 결혼 파탄극이라 하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趙貞女蔡二郎〉, 〈王魁負桂英〉, 〈張協壯元〉, 〈陳叔文三負心〉, 〈李勉負心〉, 〈歡喜冤家〉, 〈詐妮子〉 등이 있다⁵⁾. 이런 작품들로 당시 과거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나간 선비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권세가의 사위로 들어가는 바람에 민간에 많은 가정 비극이 벌어졌던 상황을 풍자하는 현실주의적 작품

는 많았다.(南戲出於宣和之後, 南渡之際, 謂之溫州雜劇. 余見舊牒, 其時有趙閔夫榜禁, 頗述名目, 如〈趙貞女蔡二郎〉等, 亦不甚多.) 이외에도, 陳淳의 「上傳寺丞論淫戲書」는 陳淳의 《北溪文集》 卷 27과 清 光緒 《漳州府志》 卷38 「民風」 條에 인용되어 있다. 劉念茲 《戲曲文物考》 p.38 및 林慶熙 鄭清水 劉湘如 編注 《福建戲史錄》 pp.21-22 참고.

4) 현재 《永樂大典目錄》, 《南詞徵錄》, 《雍熙樂府》 등을 통하여 수집된 남회의 극본은 대략 238개 정도이며 현존하는 것은 십분의 일에도 훨씬 못 미친다. 비록 극본이 전해지지 않지만 각종 남아있는 작품을 통하여 取材를 확인할 수 있다. 正史에서 나온 것에는 〈蘇武〉, 〈朱買臣〉, 〈司馬相如〉 등이, 時事에서 나온 것에는 〈祖杰〉, 〈黃孝子〉, 〈蘭蕙聯芳樓〉 등이, 唐 傳奇에서 나온 것에는 〈玉仙客〉, 〈李亞仙〉, 〈章臺柳〉 등이 있다. 民間故事에서 나온 것에는 〈孟姜女〉, 〈祝英臺〉, 〈董秀才遇仙記〉 등이, 宋金 雜劇에서 나온 것에는 〈裴少俊〉, 〈劉盼盼〉, 〈紅梨花〉 등이 있고, 佛道故事에서 나온 것에는 〈呂洞賓三醉岳陽樓〉, 〈西池王母瑤臺會〉 등이, 宋元 話本과 題材가 같은 것에는 〈柳耆卿聽詩酒玩江樓〉, 〈洪和尚錯下書〉 등이 있고, 元 雜劇과 題材가 같은 것에는 〈關大王單刀會〉, 〈拜月亭〉, 〈殺狗勸夫〉 등이 있다.

5) 〈趙貞女蔡二郎〉 희문은 서위의 《남사서록》에 실려 있고, 〈陳叔文三負心〉, 〈張協壯元〉, 〈李勉負心〉, 〈王魁負桂英〉, 〈歡喜冤家〉, 〈詐妮子〉 희문은 명대 희곡가 심경이 《남구궁삼삼초보》에 모인 〈書生負心〉곡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刷子序】一曲에 보면: 「서생이 변심을 했구나. 진숙문이 달맞이를 하다가 난영을 물에 빠뜨려 죽었고, 장협이 영달하자 빈녀의 옛 은덕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네. 무정하기도 해라. 이면은 처 한씨를 채찍으로 때려 죽었고, 왕괴는 장녀 계영을 배반해 죽음으로 이끌었네. 탄식커니, 예나 지금이나 애인들 끊이지 않고 피꼬리와 체비가 봄을 다투는 듯하네.(書生負心. 叔文習元月, 謀害蘭英, 張協身榮, 將貧女頓忘初恩, 無情. 李勉轉妻鞭死, 王魁負倡女身亡. 歎古今, 歡喜冤家繼着鶯燕爭春.)」

들로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희에 이런 제재가 특별히 많음은 나름대로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희는 어느 장르보다도 송대 사회를 가장 짙진하고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희 중에 남자의 변심을 내용으로 하는 〈趙貞女蔡二郎〉, 〈王魁負桂英〉, 〈張協壯元〉⁶⁾ 등의 작품을 통해 송대 중하층 여성의 사랑과 남자의 변심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남희의 사랑과 변심의 테마

송대에는 사대부들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그들의 변심으로 빈한했을 때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권세가의 데릴사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아내의 웃음만 보고 옛 아내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는 결혼 생활의 파탄, 이른바 ‘혼변(婚變)’은 당대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혼변을 다룬 작품의 결말은 부부가 다시 결합하여 대단원을 이루는 것과 변심한 남자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 두 가지 처리 방식을 가진다. 이런 남자의 변심을 다룬 남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趙貞女蔡二郎〉, 〈王魁負桂英〉, 〈張協壯元〉, 〈陳叔文三負心〉, 〈李勉負心〉, 〈歡喜冤家〉, 〈詐妮子〉 등이 있는데, 그 중 〈張協壯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전한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전인들의 기록을 통해 대략 그 내용을 알 수 있다⁷⁾. 본 논문에서

6) 1920년에 중국의 한 작가가 런던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산실되었던 《영락대전(永樂大典)》 제 1권을 발견하였는데 《영락대전(永樂大典)》에 실려 있던 희문(戲文) 삼종(張協狀元, 錯立身, 小孫屠)이 송원대의 남희 작품으로 확인되었다. 장협장원은 남희 양식의 작품 중 현재 원본으로 전하는 가장 이른 작품이다. 본래 절강성(浙江省) 온주(溫州)의 구산서회(九山書會)에 의해 편찬, 공연되었다. 현전하는 것은 명대 영락 시기의 판본이지만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극의 체제, 음악형식, 연회방식, 언어와 문체 등 다방면의 증거들이 이 작품이 초기 남희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어, 문학사적으로, 연극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錢南揚의 《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華正書局, 1990)를 저본으로 삼는다.

7) 〈陳叔文三負心〉은 진숙문이라는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후 가난하여 임지로 갈 노자가 없는데,

서는 '남희의 시조'라 불리는 <趙貞女蔡二郎>, <王魁負桂英>⁸⁾와 내용이 가장 완전한 <장협장원>을 중심으로 송대 중하층 여성의 사랑이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남성이 변심하여 여성을 버리는지를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정녀와 채이랑>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로 과거보러 간 채백개(蔡伯喈)가 장원급제를 한 후, 부귀공명을 탐내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그의 아내 조오낭(趙五娘)은 홀로 가사를 꾸려나간다. 흉년이 들자 조오낭은 시집 갈 때 가져온 패물을 모두 팔아 음식을 마련하여 시부모를 공양했지만, 시부모가 다 죽으니 조오낭은 서울로 남편을 찾아간다. 그러나 채백개는 조오낭이 자기 처임을 부정한다. 결국 조오낭은 말밭굽에 밟히고, 채백개는 벼락에 맞아 죽는다.

<왕괴>¹⁰⁾는 착하고 선량한 기녀 계영이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거리에 굶주려 쓰러져 있는 가난한 서생 왕괴를 구해주어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후에 왕괴가 장원급제한 후 모질게 계영을 버리고 재상의 딸과 결혼하자 계영은 울분으로 자살하여 귀신이 된다. 이에 염라대왕은 귀신들을 그녀와 함께 재상부로 보내 변심한 왕괴를 저승으로 잡아간다.

위의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때마침 기녀 최난영을 만나 노자를 얻게 되자 전처를 속이고 그녀와 함께 부임한다. 삼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전처에게 원망을 듣게 될까 두려워 달맞이를 하다가 난영을 강에 빠뜨려 죽인다. 후에 그는 난영의 혼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李勉負心>은 가난한 선비 이면이 경성에서 어느 봄놀이에서 한 여인을 만나 아내 한씨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 그녀와 사는데, 한번은 집에 돌아 왔다가 장인이 그를 나무라자 한씨를 채찍으로 때려 죽였다는 내용이다. <歡喜冤家>는 《남사서록》 「송원구편」에 제목만이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왕괴>와 병칭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작품이라고 추측된다. <詐妮子>는 小千戶가 먼저 하녀 연연과 정을 통한 후 그녀를 버리고 다시 앵앵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로 남자의 변심을 다루고 있다.

- 8) 《南詞敘錄》과 《猥談》의 기록에 의하면 남희의 최초 작품으로 이 두 작품이 전하고, 이 두 작품을 '戲文之首'라 일컬었다.
- 9) <조정녀채이랑> 극본은 이미 사라지고 극목만 남아있는 작품이지만 최초의 남희로 평가받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비과기>에서는 원작과는 달리 채백개를 효와 의를 갖춘 인물로 그렸지만, <조정녀채이랑>에서는 처참한 죽음을 맞는 것을 통해 희문의 통속적이고 민간적인 특징을 잘 살린 작품이다.
- 10) 왕괴는 북송 때의 실존인물로서 이야기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張邦畿의 《侍兒小名錄拾遺》와 羅輝의 《醉翁談錄》 등 송대의 필기집에 보이는데, 이를 통해 송대에 이미 민간에서 널리 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에게 사랑을 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과거에 급제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권문세족과 혼인하여 이런 헌신적 사랑을 철저히 외면하며 조강지처를 매몰차게 버리고 그 대가로 철저히 파멸된다는 내용이다. 왕 괴는 아내의 혼귀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고 채이랑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 이들 모두는 '남자의 변심→여자의 죽음→남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전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변심한 남자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는 초기 남희 작품은 당시 민중의 가식 없는 솔직한 감정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변심이라는 제재는 같지만 〈趙貞女蔡二郎〉, 〈王魁負桂英〉과는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장협장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협장원〉은 남송 때 온주의 구산서회(九山書會)에서 당시에 통용됐던 저본인 〈張協壯元傳〉을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 작품이 상당히 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도의 장협(張協)은 과거에 응시하려고 경성으로 가다가 오계산에서 강도를 만나 짐도 잃고 심한 상처를 입게 되어 오래된 사당에서 잠시 비바람을 피한다. 거기에는 본래 왕빈녀(王貧女)라고 하는 여인이 홀로 품을 팔며 살고 있었는데 장협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상처를 치료해주고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상처가 낫게 되자 장협은 빈녀에게 구혼을 하나, 거절당하고 만다. 그러나 평소에 빈녀를 보살피 주던 李氏 아저씨와 아주머니까지 권하는 바람에 혼사가 이루어진다. 장협이 다시 과거를 보러 떠나려 하자, 빈녀는 머리카락을 잘라 장협이 과거시험을 보러 갈 여비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장협은 과거에 급제하자 곧 빈녀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는다. 장협이 장원 급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빈녀는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 걸식을 하며 돌아오게 된다. 한편 당시 태위로 있던 왕덕용(王德

11) 제1출 【滿庭芳】: 잠시 소란을 멈추고 웃음과 말도 멈추고, 이 남다른 모습을 좀 보시오. 教坊의 격식을 갖추었고 絳線社와 명성을 같이 할 만 하시오. 노래와 익살을 주고 받으니, 그걸 듣고는 모두 놀란다오.……〈장원장협전〉은 전에 여러 곳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우리 서회가 제일이란 명성을 얻어가려 한다네.……(暫息喧嘩, 略停笑語, 試看別隴門庭, 教坊格範, 絳線可全聲, 酬酒詞源譚砌, 聽談論四座皆驚. ……〈狀元張叶傳〉前回會演, 汝輩搬成. 這番書會, 要奪魁名.) 제2출 【櫻桃落紅】: 구산서회가 이제 새로 다듬어 내놓으니, 또 다른 맛이리오!(九山書會, 近日翻騰, 別是風味.)

用)은 딸 승화(勝花)를 장원인 장협에게 시집보내려하나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승화는 화병이 나 죽게 되고, 왕덕용은 대노하여 제주첨판(梓州僉判)으로 부임하는 장협의 상관으로 자청하여, 그 한을 풀고자 하였다. 장협은 부임 도중 오계산을 지나게 되는데, 아예 빈녀를 죽여 화근을 없애고자 하여 칼을 빼어 빈녀를 찌르고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린다. 다행히 이웃에 사는 이씨 부부에게 발견되어 목숨만을 건지게 된다. 왕덕용 부부 역시 임지로 가던 중 우연히 빈녀가 있는 사당에 들르게 되고, 이때 장협에게 당해 고통 중에 있는 빈녀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딸 승화와 너무 닮은 빈녀를 그들의 양녀로 삼아 함께 재주로 가게 된다. 왕덕용이 부임하여 장협의 배알을 누차 거절하자, 장협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며, 덕용이 양녀인 빈녀를 장협과 결혼시킴으로 부부가 다시 화합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부분은 곤경에 빠진 장협이 너무도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왕빈녀와 결혼을 하지만 과거급제 후 그를 찾아온 그녀를 문 밖에서 내쫓고 심지어는 칼로 죽이려하는 배은망덕을 자행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이고, 다른 한 부분은 빈녀의 신분이 왕덕용의 의녀가 되면서 부부가 다시 결합한다는 희극적인 결말이다¹²⁾. 즉, 앞서 살펴본 두 작품과는 다른 '남자의 변심→ 부부의 재결합'이란 희극적인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민중의 심성을 반영한 것이며, "빈녀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통해 관중의 대단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 것일 뿐 아니라 전극을 통해 풍자하고 비난받아 실추된 장협의 명예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 결말이 어떻게 변했던 간에 작품 가운데 드러난 빈녀의 근실한 여성상과 장협의 졸렬한 선비로의 형상은 강한 대조를 이루며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¹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협은 '변심하는 선비'로의 정형적인 인물이다. 그렇다면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살에 글을 읽고

12) <환관자제작립신> 제 5출에서는 남희 작품을 열거하는 중에 <張協斬貧女>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장협장원>의 내용이 원래는 장협의 배신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 전하는 <장협장원>이 후에 개편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3) 오수경, 《송원남희연구》, pp.151-152 인용.

다섯 살에 글을 짓고 문장은 이백과 두보보다 낮고 재주는 이정(二程)의 형제와 견줄만한¹⁴⁾ 그는 공명을 위해 과거를 보러가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빈녀가 더 이상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을 것 같아 빈녀에게 감언이설로 부부가 되기를 요구한다.

장협: (노래한다) 내 병이 점차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돌아갈 수는 없구나. 남자는 남편이 없고 나는 부인이 없으니 우리 둘이 결혼합시다. 난 공부를 많이 하였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이요. 내 과거에 급제하면 이곳에 돌아와 그대를 데리고 우리 고향에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좋겠소.

빈녀: (노래한다) 당신은 지금 곤경에 빠져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도 가볍게 결혼을 얘기하시는군요. 당신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당신에게 매달리고 불편을 끼치는 일이지요.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아 결혼할 수 없으니 어서 나가세요¹⁵⁾.

그러나 뜻하지 않게 빈녀의 거절로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자 장협은 포기하지 않고 평소 빈녀를 돌봐주시는 이씨 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게 된다. 결혼에 성공한 후, 얼마되지 않아 장협은 과거를 보러 떠나겠다고 빈녀에게 노자를 준비해 달라고 한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머리를 잘라 약간의 돈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모른 장협은 늦게 돌아온 빈녀에게 온갖 욕설과 매질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협: (화를 내며 말하길) 살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무례함은 용서할 수 없는 법인데, 빈녀 이 년, 반쯤 때려 죽여도 시원찮겠다. 내가 재난을 만나서가 아니라면, 너 같은 것을 가까이나 했겠는가. 정말 짝이 못 되는 줄 알지만 사정이 급하니 함께 한 것뿐인지.

장협: 이 천한 년, 걸음을 걸을 때는 치마를 날리지 않고, 웃을 때에는 입술을 벌리지 않고 웃는 것이 아녀자의 태도인데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술을

14) 제 27출 (生白) ……三歲上讀得書, 五歲上屬得對, 文過李杜, 才並二程……

15) 제 14출 【同前換頭】 ……娘子無夫協無婦, 好共成比翼. 飽學在肚裏, 異日風雲際, 身定到鳳凰池. 一舉登科, 強在廟裏, 帶汝歸到吾鄉, 真個好理! 【同前換頭】 你好不度己! 你好忒容易! 這言語甚張志? 還嫁汝好婦人疑, 惹人非, 奴似水徹底澄清, 沒纖毫點翳. 請君目即出門, 休在這裏!

마시고 놀다가 얼굴까지 벌게 가지고 돌아왔느냐. 이 년을 꽤하겠구나.
빈녀: 서방님, 하늘이 증명합니다. 제가 말할게요.
장협: 빨리 말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일까지 두드려 썰테니¹⁶⁾.

이를 통해 장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약삭빠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자 돈을 챙겨 과거를 보기 위해 고묘를 떠나자마자 장협은 “빈녀를 아내로 얻은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이곳을 벗어났구나.¹⁷⁾”하고 또한 “집이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노자가 너덕지 못하여 근심하다 갑자기 화를 입어 오고 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빈녀의 보살핌을 받아 혼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뜻하게 자고 배불리 먹으니 공부를 잠시 할 수 없었다. 다시 서울로 길을 떠나니 여비가 너덕지 않구나. 龍成리에 이르니 심신이 새롭구나.¹⁸⁾”라 하였다. 이로 장협이 빈녀와 결혼을 한 것은 단지 ‘따뜻하게 자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이지 어떤 따뜻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신의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과거합격 후의 모습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장협에게 연락이 없자 빈녀는 장협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 그가 과거에 급제한 걸 알고 장원부로 찾아오나 그녀를 문전박대하고 외면하며, “난 부귀한 신분이고 당신은 빈녀인데 어찌 감히 나를 모독하며 내 아내라 하는가”라 하며 “때려 내 쫓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과거에 이미 장원에 급제한 장협은 출세하고 귀하게 되자 빈녀의 은혜에 대해 깨끗이 잊어버렸고, 더욱이 빈녀가 경성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수치스럽게 여겨 아예 빈녀를 죽여 버리려고 계획한다.

장협: 원한이 없으면 군자가 아니고,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못 되지.

16) 제 20出 (生出發怒白) 區捕殺人可恕, 無禮難容! 貧女那賤人, 十人打底九人沒下! 自家不因災禍, 誰肯近傍你每. 正是: 情知不是伴, 事急且相隨. ……(生白) 賤人! 行不動裙, 笑不露脣, 這是婦女體態. 休整日價去, 臉兒又紅, 那裏去吃酒來? 打那賤人! (打旦)(旦)屈! 丈夫, 有天可表, 有神可鑒. 待我自說. (生) 你快說! 若不直說, 從今日打至明日.

17) 제 24出 【望吾鄉】 ……中途怎知人劫去, 娶它貧女不得已. 幸然脫此處……

18) 제 24出 (生白) 家貧未是貧, 路貧愁殺人. 遭逢毒害手, 去住不由身. 尋思雪中路, 無眠扣廟門. 得它貧女顧, 不免議姻親. 宿食圖溫飽, 詩書暫溺淪. 重登京闕路, 盤費幾辛勤. 到得龍城裏, 身心一處新.

몹쓸 빈녀가 경성에까지 와서 사정도 보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다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그녘 만나 한두 마디로 되면 그냥 지
나칠 테고,
조금이라도 계속 엉터리없이 굴면, 단칼에 죽여 버릴 테다.
그 사랑도 함께 부숴버려야지.
장협이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되지도 않는 말로 날 거스르는 건 참을 수 없어.
이번엔 풀을 베어 뿌리까지 없애버려야지, 봄이 되어 다시 싹이 날까
염려스럽거든¹⁹⁾.

또 오계산을 지나다 빈녀를 만나자 칼을 빼어 빈녀를 타살하여 계곡으로 밀어
버리기도 한다. 장협의 이런 태도는 사악한 그의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고,
그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반 민중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세 작품을 통해 당시 한겨한 문인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이런 중하층 여성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일단 과거에 급제하면 변심하여 배
은망덕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민간에서 출발한 남희는 이런 선
비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당대 희문의 창작이 민중에 속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통속적이고 민간
적인 작품이 널리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19) 제 40出 (生)恨尙非君子,無毒不丈夫。回耐那貧女來京裏,不問情由,冒犯不官。今日到此,我還見它後,
說一兩句好時,尤自庶幾,稍更無知,一劍教死。和那神廟,一時打碎。張協爲人非好口,回耐言語相撩撥。
這回割草不除根,惟恐萌芽春再發。

20) 남송 시인 陸游의 시 「小舟游近村舍舟步歸」의 제 4에 보면 당시 설창고사 중에 '채백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가장의 늙은 버들에 석양이
물들 때, 북을 멘 눈 먼 할아범 마침 노리판을 벌린다. 죽은 뒤의 시비를 누가 관장할 수 있으
리, 온 마을이 채중량의 이야기를 듣는다.(斜陽古柳趙家莊,負鼓盲翁正作場,身後是非誰管得,滿村
聽唱蔡中郎.)」

3. '변심'을 통해 본 송대의 사회문화

앞서 살펴본 세 작품에서처럼 남자 주인공들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빈한한 여성들과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가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나면 돈과 권력이 있는 권문세가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전의 혼인관계를 불인정하며 새로운 사회 여건에서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려 한다. 이때 조강지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강물에 밀어 넣기도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왜 남희에서는 이런 남자의 '변심'을 재제로 다루고 있는 극들이 많이 출현했는지에 대해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과거를 통한 신분상승

송 왕조의 문치주의 정책이 과거제도로 제도화 되면서 각 계층의 선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문이 크게 넓어졌다. 송대 이전에는 가난한 지식인들 중 극소수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위진남북조시기에는 '구품중정제'²¹⁾로 관리를 뽑아서 소수 귀족문벌만이 권력을 독점했다. 수당 이래로 과거제도를 채용하여 비록 중소지주계층에게도 참정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고, 대부분은 호족이나 귀족에게 돌아가 빈한한 문인이 과거에 급제하기는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이었고, 설령 급제한다고 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무척 어려웠다. 송대에 이르러 과거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선발정원의 수도 당대보다 많았고 미봉, 등록, 쇄원, 별두시²²⁾ 등의 다양한 법규를 시행하여 권문세가와 시험관의 청탁이나 뇌물수수

21) 九品中正制는 위진남북조시기의 관리등용법으로 위의 조조가 실시한 제도로 각 州郡縣에 지방 장관과는 별도로 中正을 두어, 그 중정이 지방의 인사를 德行, 才能에 따라 구품 즉 구 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이다.

22) 彌封, 謄錄, 鎖院, 別頭試는 권세가들이 과거시험을 조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彌封은 시험지 상단의 수험생 이름과 관직, 가문 등의 기록을 가려 붙인 것으로 '호명'이라고도 한다. 謄錄은 미봉된 후에도 시험관이 그 필적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시 답안지를

의 폐단을 막아 단지 응시자의 문장실력으로 합격의 여부를 정하였다. 이로 인해 각 계층의 선비가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송대의 과거는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서, 전통 중국 사회의 최고계층이라 할 수 있는 관료로 진출하는 신분상승의 통로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의 사다리(the ladder of success)'라 불렸다²³⁾.

이렇게 과거제도의 공정성과 합격 정원의 확대로 각 계층의 선비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자 입신양명을 위해 본격적으로 과거에 몰두하게 된다. "아침에는 농부였다가 저녁에는 벼슬아치가 된다.(朝爲田舍郎, 暮登天子堂)", "십년동안 집에 찾아오는 이가 없었으나 한 번에 이름을 날리니 천하가 다 아는구나.(十年窗下無人問, 一舉成名天下知)"란 말들은 이름 없는 선비가 과거를 통해 하루아침에 입신양명하게 됨을 묘사하고 있고, 이런 입신양명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과거를 통한 관료진출 희망자의 수적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에 비해 관직은 한정되어 있어 출사하지 못한 문인들의 적체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²⁴⁾.

반면 많은 선비는 과거를 통해 단번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하고 혼인을 이런 수단으로 삼았다.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정치적인 권세와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송대에서도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혼인을 이용하였다. 특히 당대까지 족보를 중시하던 혼인이 송대에 와서는 문벌을 따지지 않아 '혼인하는데 가문을 보지 않는다.(婚姻不問閥閥)'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²⁵⁾. 그렇다면 송대에는 무엇을 중시했는가? 바로 과

모두 전담자에게 맡겨 다시 옮겨 쓴 후 시험관이 심사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鑰院은 지공거는 일단 명을 받으면 즉시 외부와 격리된 채 시험장에서 문을 걸어 거처하였고 집안사람들도 만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別頭試는 별시라고도 하며 응시자가 시험관과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회피하고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정(金正), 김효민역 《중국과거문화사》(동아시아, 2003), pp.152-157 참조.

23) 何炳棣,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Aspects of Social Mobility, 1368-1911", 1962.
24) 사대부들 중에 관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다. 경관京官만 하더라도 승의랑承議郎부터 조산대부朝散大夫까지 2천8백여 명이나 되고, 발령 대기자가 1만여 명이나 되며, 여기에 대사신大使臣이 2천5백여명, 소사신小使臣이 1만3천명이니 전국의 결원을 다 합해도 배치하기에 부족하다.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 386)

25) 張邦彥, 〈試論宋代婚姻不問閥閥〉, 《宋代婚姻家族史論》(人民出版社, 2003), pp.39-61 참조.

거에 급제한 특히 장원이 된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이로 송대 사회에서 혼인관계를 맺는데에는 문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권문세도자들은 사위를 택하고자 할 때 과거가 실시되는 해에 맞추었고, '장원한 사람을 사위로 잡기(求婚必欲得高第者)'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사위를 선택할 때 특히 장원급제한 사위를 선택할 때는 가문, 인품, 결혼여부는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의 장래와 진도를 가장 중시 여겼다²⁶⁾. 이런 학문능력만 보고 사위로 맞이하는 것을 '榜下掇婿'라 했고, 그 사위를 '嚮婿'라 부른다²⁷⁾. 이처럼 기존 권문세가에서는 과거합격자를 사위로 택해 정치적 지위를 지속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려 했을 것이고, 특별한 줄이 없는 신진사대부들은 그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정계 진출을 순탄하게 보장받으려 하는 상호적인 필요에 의해 이들이 서로 결탁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새로 급제한 선비들은 자신의 부귀와 명예만을 위해 권문세가의 딸과 결혼하여 가난한 시절의 조강지처를 버림으로써, "부유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귀하게 되면 아내를 바꾼다.(富易交, 貴易妻)"는 사건들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통치계층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속한 일반 서민층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런 문제점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예술로써 승화되어 서민들의 무대에 재현되었던 것이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세 작품의 남자 주인공 왕괴, 채개백, 장협 역시 모두 가난한 수재에 불과하였고 이들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자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결국에는 조강지처를 박대하고 심지어는 죽임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26) 張邦璋, 〈宋代的榜下擇婿之風〉, 《宋代婚姻家族史論》(人民出版社, 2003), pp.64-66 참조.
27) 金中樞, 〈北宋科舉制度研究再續—進士諸科之殿試試法〉, 《宋史研究集》, 國立國語館主編, 第16輯 (1986), p.32 참조.

2) 상업경제의 발달로 인한 배금주의 팽배

송대는 과거제도에 의한 개인 능력의 중시와 함께 상업경제의 발전으로 사회적 출세와 경제적 수익이 맞물려 혼인에 있어서 경제상의 가치교환이 중시되었다. 혼인에 있어서 가문이나 문벌은 중시되지 않았고 재산의 정도가 중시되어, '재물로서 혼인을 논한다.(論婚以財)'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풍조가 만연하였는데 이는 송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제와 상업의 발전으로 부는 사회적 출세를 위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어 혼인에 있어서도 이런 부의 가치가 상당히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송대는 관료사회로 과거를 통한 출사여부가 가정의 위세를 결정짓게 됨에 따라 부유층에서는 딸을 과거에 급제한 사대부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해 많은 돈 즉, 고액의 지참금으로 과거에 급제한 선비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반면, 과거에 급제한 사대부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유로 신부 집에 고액의 지참금을 요구하여 서로 가격을 흥정하기에 이른다. 최고 가격으로 흥정되어 혼인이 성사된 사위를 '고가사위(高價女婿)'라 불렀고, 이들은 신부 집안의 '진귀한 물품(可居的奇貨)'이 되었던 것이다²⁸⁾. 당시 이런 매혼의 현상이 심각해져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미 만연된 풍조는 견잡을 수 없었다²⁹⁾. 그렇다면 부유층들은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그들을 사위로 삼으려 한 것일까? 부유층들은 과거합격자를 사위로 삼아 가정의 위세를 떨치고 정치적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려 했을 것이고, 가난한 서생 입장에서는 과거를 위해 지금까지 소요한 비용과 향후 발령이나 진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조달이라는 측면³⁰⁾에서 매혼(賣婚)이 정당한 보상이며 미땅한 수익이라

28) 張邦煒〈宋代的榜下擇婿之風〉, 《宋代婚姻家族史論》(人民出版社, 2003), p.83 참조.

29) 張邦煒〈宋代的榜下擇婿之風〉, 《宋代婚姻家族史論》(人民出版社, 2003), p.83 참조.

30) 과거시험의 선발인원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관원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지는 심각한 폐단이 생겨났다. 소식의 지적처럼 한 자리를 세 사람씩이나 맡고 있는데, 한 사람은 황제에게 임명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보결된 것이고, 또 한사람은 발령 대기자이다. 관직에 있는 기간은 짧고 대기 기간은 길어, 재임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대기기간 동안 써버린 생활비까지 메우다 보니 그 때문에 탐관들이 많아졌지만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자리가 나면 보통 예닐곱 명의 대기자가 있어,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 아웅다웅하느라 염치는 다 잃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송대에는 관원 수 과다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관원들이 경제적인

중국 연극에서 보이는 사랑과 변심 - 송대 남회를 중심으로 195
여겼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 작품의 남자 주인공 왕괴, 채개백, 장협도 변심하
여 조강지처를 버렸던 것이다.

3) 중하층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현존하는 사료들을 보면 송대 여성들은 법률적으로나 재산권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러나 이는 상류층 여성에게 국한된 상황
이고 일반적인 중하층 여성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야했다. 특히, 성리학의 등
장으로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해지고 상업경제의 발달로 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송대에는 가난하고 세도가 없는 이런 중하층 여성의 삶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마련이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대에는 혼인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
는데 지참금의 액수가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지참금을 가
져갈 수 없는 부모 없는 여성이나 이전 관료의 딸이 없지만 지참금이 없으면 첩으
로 팔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다³²⁾.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여자 주인공들이 중하층 여성들이거
나 기녀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난하지만
과거를 준비하는 서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왜
냐하면 그들은 장래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어 그녀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
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잘못 선택했을 때에
는 극에서처럼 더욱 비참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송대에는 법률적으로
중혼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심한 사대부들은 그들의 앞날을 위해
조강지처는 '장애'였기 때문에 철저히 버려야했던 것이었다³³⁾. 결국 이런 여성들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송대의 과거문화》 pp.214-218 참조.

31) Patricia Ebrey著, 胡志홍譯, 《宋代的婚姻和婦女生活》(江蘇人民出版社, 2004), pp.1-17 참조.

32) 육정임〈송대 딸들의 재산 상속 권한〉,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서해문집, 2005),
p.190 참조.

33)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는 張邦輝의 《宋代婚姻家族史論》, Patricia Ebrey著, 胡志홍譯, 《宋代的
婚姻和婦女生活》 참조.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宋刑統戶婚律》(新宇出版社, 1986년. p.214) 참

은 남자의 변심으로 버림을 받아도 단지 찾아가 자신이 그의 정당한 아내임을 외칠 뿐이지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장협장원>의 빈녀도 장협의 배신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에 왕덕용의 의녀가 되어 이젠 더 이상 빈녀가 아닌 '부녀(富女)'의 신분이 되어서도 자신의 원한을 풀기는커녕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당시 중하층여성의 힘겨운 위치를 알 수 있다.

4. 나오면서

유행하는 유행가나 문학작품을 보면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학작품이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송대의 통속문학을 대표하는 남희는 동시대의 타 문학 장르에 비해 송대 사회를 가장 꿰뚫고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과거제도를 통한 신분상승의 욕구로 인한 일반 민중들의 고통은 남희를 통해 고스란히 토로되고 있다. 이는 남희가 주로 하층 문인이나 예인에 의해 창작되어 민중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趙貞女蔡二郎>, <王魁負桂英>, <張協壯元> 세 작품의 소재인 사랑과 변심을 통해 송대 사회에서 왜 이런 혼변극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과거를 통해 신분상승의 욕구, 경제발달로 인해 금전의 중요성, 중하층 여성의 낮은 지위 등의 원인으로 남성들에게 '변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로 혼변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신한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은 피해자가 속한 서민계층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이것이 연극에 투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지배층의 불만은 지배계층에게 자유로울 수 없어 남희 역시 극의 상연금지, 결말의 대단원 처리 등의 방식으로 현실과 지배계층의 타협을 이루는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남희 작품의 영향력이

조.

중국 연극에서 보이는 사랑과 변심 - 송대 남희를 중심으로 197
상당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희가 민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대부보다는
일반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현실주의적인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錢南揚, 《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 華正書局, 1990.
錢南揚, 《戲文概論》, 木鐸, 1988.
俞爲民, 《宋元南戲考論》, 臺灣商務印書局, 1994.
Mackerras, Colin, 김장환 외 역, 《중국희곡사》, 학고방, 2001.
김정규, 《中國戲曲總論》,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0.
岩城秀夫 著, 강영매 역, 《중국고전극연구》, 새문사, 1996.
신지영, 《중국 전통극의 이해》, 범우사, 2002.
김학주 외, 《중국공연예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양희석, 《중국희곡》, 민음사, 1994.
許金榜, 《中國戲曲文學史》, 中國文學出版社, 1994.
金諍 著, 김효민 역,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John W. Chaffe 著, 양중국 역,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신서원, 2001.
何柄棣 著, 조영록 역, 《중국과거제도의 사회사적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양중국, 《송대사대부사회연구》, 삼지원, 1996.
張邦煒, 《宋代婚姻家族史論》, 人民出版社, 2003.
Patricia Ebrey 著, 胡志홍譯 《宋代的婚姻和婦女生活》, 江蘇人民出版社, 2004.
金中樞, 《宋史研究集》, 國立國譯館主編, 第16輯, 1986.
오수경 《송원남희연구》, 박사학위논문, 1992.
하경심, <宋元代戲曲所描寫的家庭中女性形象>, 《중국학보》 제46집

<<中文提要>>

戏文劇本雖流傳的很少, 但它的本事大半是可靠的. 其中反映婚姻問題的特別多, 約在三分之一以上. 其中可分爲兩大類: 一類是爭取婚姻自由, 一類是婚變. 這兩種情況, 都有它的現

實根據的。尤其婚變，知識分子一朝發迹，就丟棄了貧賤時的妻子，贅入豪門，但見新人笑，不見舊人哭，婚變現象因而宋代較為普遍。在戲文中，如〈趙貞女蔡二郎〉，〈王魁負桂英〉，〈張協壯元〉，〈陳叔文三負心〉，〈李勉負心〉，〈歡喜冤家〉，〈詐妮子〉等，多是典型的例子。本文以〈趙貞女蔡二郎〉，〈王魁負桂英〉，〈張協壯元〉為主，探討宋代男女的愛情和變心如何描寫以及男性所變心的原因。

關鍵詞： 사랑, 변심, 혼변, 남희, 희문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1일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